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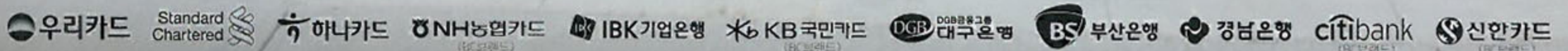
MARCH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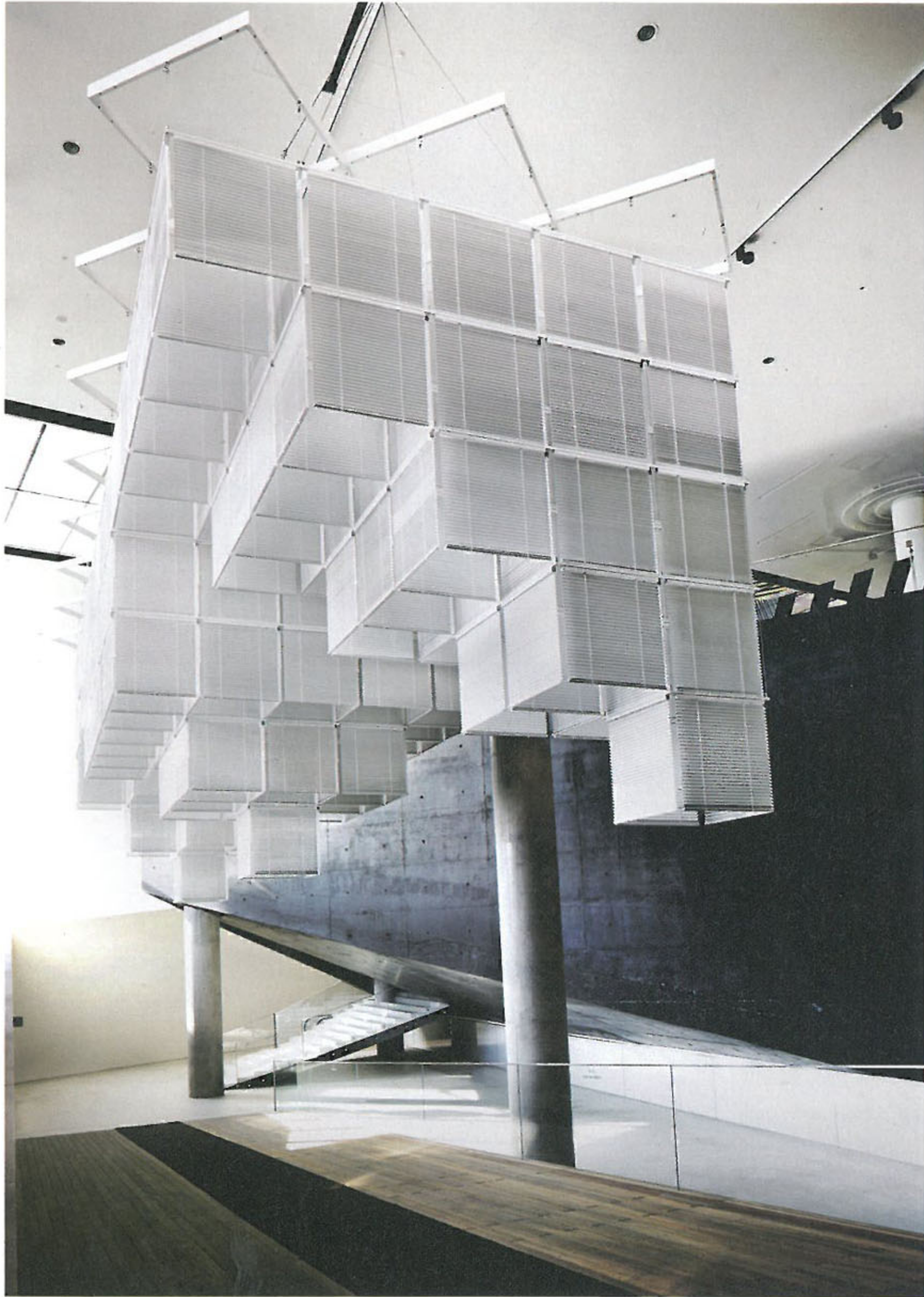
# THE BC

ULTIMATE  
BC PLATINUM  
EXPERIENCE



BC 카드는 11개 회원사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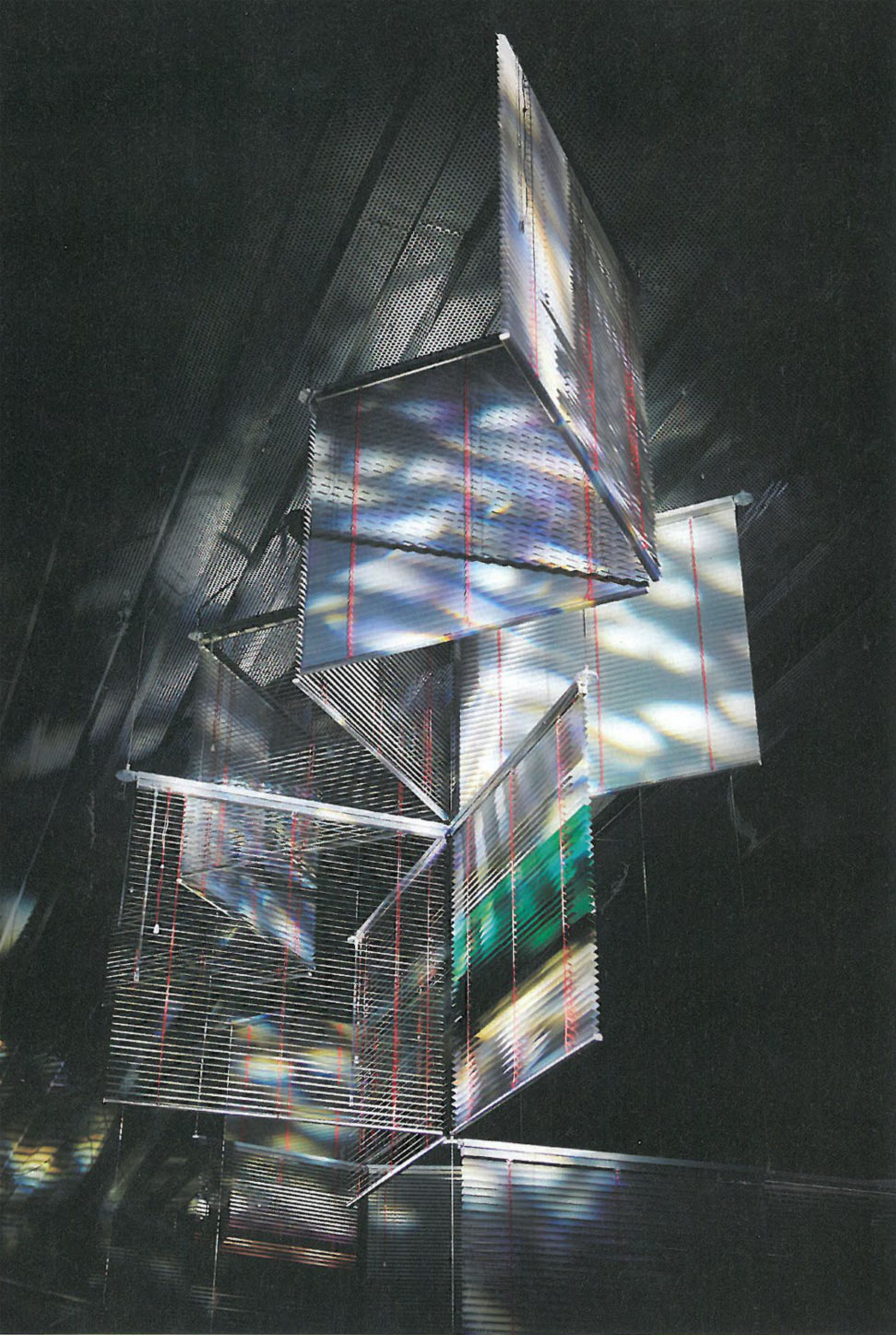




# 삶을 향한 자유로운 사유 양혜규

2003년 에르메스 미술상 전시 오픈 현장에 마르셀 뒤샹의 '수염 난 모나리자'처럼  
콧수염을 그리고 등장해 떠들썩하게 한국 미술계 데뷔를 치른 이가 있다. 콧수염은 관습에  
대한 도전이자 오래도록 자유롭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작가 양혜규다. 그녀가 5년 만에 국내 개인전으로 찾아온다.

글 장인지 사진 김정아



양혜규는 전 세계 미술 비평가와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21년 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후 해외를 주무대로 활동해 온 그녀는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스위스 아트바젤 언리미티드, 독일 카셀 도큐멘타 등 세계 유수의 아트 페어와 유명 미술관에 초대됐고, 지난해에는 아트팩트넷이 선정한 '세계 300위 이내 작가'에 고(故) 백남준, 김수자 작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해외 미술계에서의 유명세와는 달리 국내에선 아직 그의 이름이 낯설다. 그런 그녀가 5년 만에 국내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삼

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최한다. 조각과 설치미술, 영상, 콜라주 등 그동안 선보인 대표작부터 새로운 작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신작까지 35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서도호 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한국 중견 작가 개인전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는 전시 제목은 소설가 조지 오웰의 수필 <코끼리를 쏘다>와 로맹 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에 등장하는 코끼리를 은유적인 매개로 삼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에 끊임없이 사유해 온 작가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해서 보여준다.



↑ (위부터) 'VP 학생회', 대여한 의자와 탁자, 가변 크기, 2001 / 2015.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전시 전경.

← '성채, 알루미늄 블라인드, 알루미늄 천장 구조물, 분체 도장, 강선, 무빙 라이트, 향 분사기, 가변 크기, 2011. (왼쪽 페이지) '솔 르윗 뒤집기-23배로 확장된,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 알루미늄 블라인드, 알루미늄 천장 구조물, 분체 도장, 강선, 350×1052.5×352.5cm, 2015.

전시장 입구로 들어서면 수십 개의 순백색 블라인드가 천장의 경사를 따라 설치된 신작 '솔 르윗 뒤집기-23배로 확장된,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이 눈에 들어온다. 멀리서 보면 마치 미완성된 큐브 퍼즐이 공중에 떠 있는 듯 수직과 수평의 단순한 조형미를 자랑한다. 미국 미니멀리즘 조각가 솔 르윗(Sol Lewitte)의 조각을 차용한 블라인드 설치미술 작품이다. 지금까지 봐온 그녀의 블라인드 작업과는 다르게 구성이 간결하고 단순해진 것이 특징. 작품명처럼 작가 자신의 기존 작업 방식을 '뒤집은' 이 작품은 그녀의 블라인드 작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준다.

1층 전시공간에 전시된 짚풀을 엮어 만든 '중간 유형'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엘 카스티요(El Castillo) 등을 모티프로 만든 구조물 3점과 인체를 연상시키는 조각 6점으로 구성됐다. '중간유형'이라는 제목 그대로 모형과 실제의 중간 크기를 재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철골 구조에 짚을 엮어 완성한 작품은 광택이 나는 인조 짚을 사용했다. 인공 소재로 만들었지만 수작업의 섬세함이 표현된 작품은 내추럴한 느낌이 묘하게 묻어난다. 우리는 인공 모조품을 원본에 반하는 조악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원본과 전통이 만든 틀



↑ (왼쪽부터) '상자에 가둔 발레', 2013 / 2015.  
'중간 유형 - 중국 신부', 인조 짚, 강철 스탠드,  
분체 도장, 바퀴, 인도 방울, 조롱박, 황마실,  
삼색 띠, 190×125×130cm, 2015.

→ (앞) '정지(井址)', 과목, 밤나무, 느티나무, 바둑판,  
은행나무, 바퀴, 157×155×115cm, 2015.  
(뒤)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자춤 - 신용양호자  
#240', 보안 무늬 편지 봉투, 모눈종이, 색종이,  
액자, 비닐 시트 21점, 920×775cm, 2015.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작가 양혜규는 이런 '함정'에 대해 일깨워준다. 다채로운 문화권에 흠어져 있으면서 각기 다른 특징으로 발전된 질풍을 통해 문화 간의 차이를 너머 보편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는 양혜규입니다"라며 한 남성의 음성이 흘러 나온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말투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된다. 소리의 근원지는 '창고 피스'다. 23점에 달하는 작가의 초기 작품들이 미술품 운송업체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 운반용 나무 팔릿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보관할 곳이 없던 작품들을 전시장에라도 보관하려는 작가의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양혜규를 단번에 주목받는 작가로 만든 작품이다. 전시공간은 있지만 보관할 장소는 없는, 팔리지 않은 자신의 작품을 쌓아놓은 젊은 예술가의 서글프면서도 아이러니한 현실과 그 뒤에 감춰진 미술계의 생태계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이 작품은 2007년 독일 베를린의 하우스브룩 전시장에서 열린 '창고 피스 풀기' 전을 통해 포장 속 작품들이 해체되기도 했다. '창고 피스를 위한 연설'은 걸로 드러나지 않는 개별 작품의 내용이나 사연을 20년 전에 한국으로 망명한 버마인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오랜 시간 외국에 머물렀

던 작가 자신의 초상이기도 하다. 그녀의 초기 작품 세계를 짚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VIP 학생회'가 있다. 2001년부터 선보여온 이 작품은 인테리어를 의뢰받은 VIP 라운지를 친구들에게 빌린 각양각색의 가구로 채운 것이 그시초다. 서울의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대여한 의자와 탁자를 전시장 한 편에 배치해 놓은 이 작품은 관람객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된다. 오직 대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현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전시가 열리는 도시마다 달라지는 게 이 작품의 묘미다. 사무실 전경을 연상시키는 딱딱하고 경직된 가구들로 가득한 풍경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건네는 듯하다.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자 상반된 분위기가 펼쳐진다. 어두컴컴한 전시실에 186개 블라인드가 어우러져 압도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양혜규의 전형적인 블라인드 설치미술 작품인 '성채'는 정방형에 가까운 성곽과 수직으로 뻗은 탑으로 구성된다. 시야를 가리는 블라인드를 피해 자연스레 열린 틈 사이로 향한다. 블라인드 너머 어떤 신호처럼 느리게 흔들리는 무빙 라이트는 물속을 유영하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을 일깨운다. 멀리서 새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려온다. 또 향 분사기 6대가 지나갈 때마다 모닥불, 산 안개,

바다 내음 등의 인공 향을 내뿜으며 각기 다른 시공간을 떠올리게 만든다. 여유 있게 둘러볼수록 오감을 자극하며 감성과 감각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작품이다.

이 밖에도 옷걸이용 행거에 전선, 전구,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친숙한 일상의 소재들을 매단 '서울 근성', 움직이는 조각에 낚시 방울을 달아 소리를 내는 조형물인 '상자에 가둔 발레', 첫 공개되는 봉투 콜라주 신작 '신용양호자들' 등 다양한 일상 속 오브제를 소재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사유들을 하나의 설치미술 작업으로 재현하는 양혜규. 그녀의 작품은 수많은 은유와 상징들이 넘쳐나 알 듯 말 듯한 수수께끼처럼 다가온다. 그렇다고 미리 위축될 필요는 없다. 관객의 자유로운 사유를 부추기며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진진하다.

#### 양혜규 개인전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 🎨 일시 2015년 2월 15일~5월 10일
- 📍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 리움 미술관(이태원로 55길 60-16)
- ☎ 문의 02-2014-6900



## INTERVIEW

### 그녀의 치열하고 섬세한 시선

#### 5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인데 소감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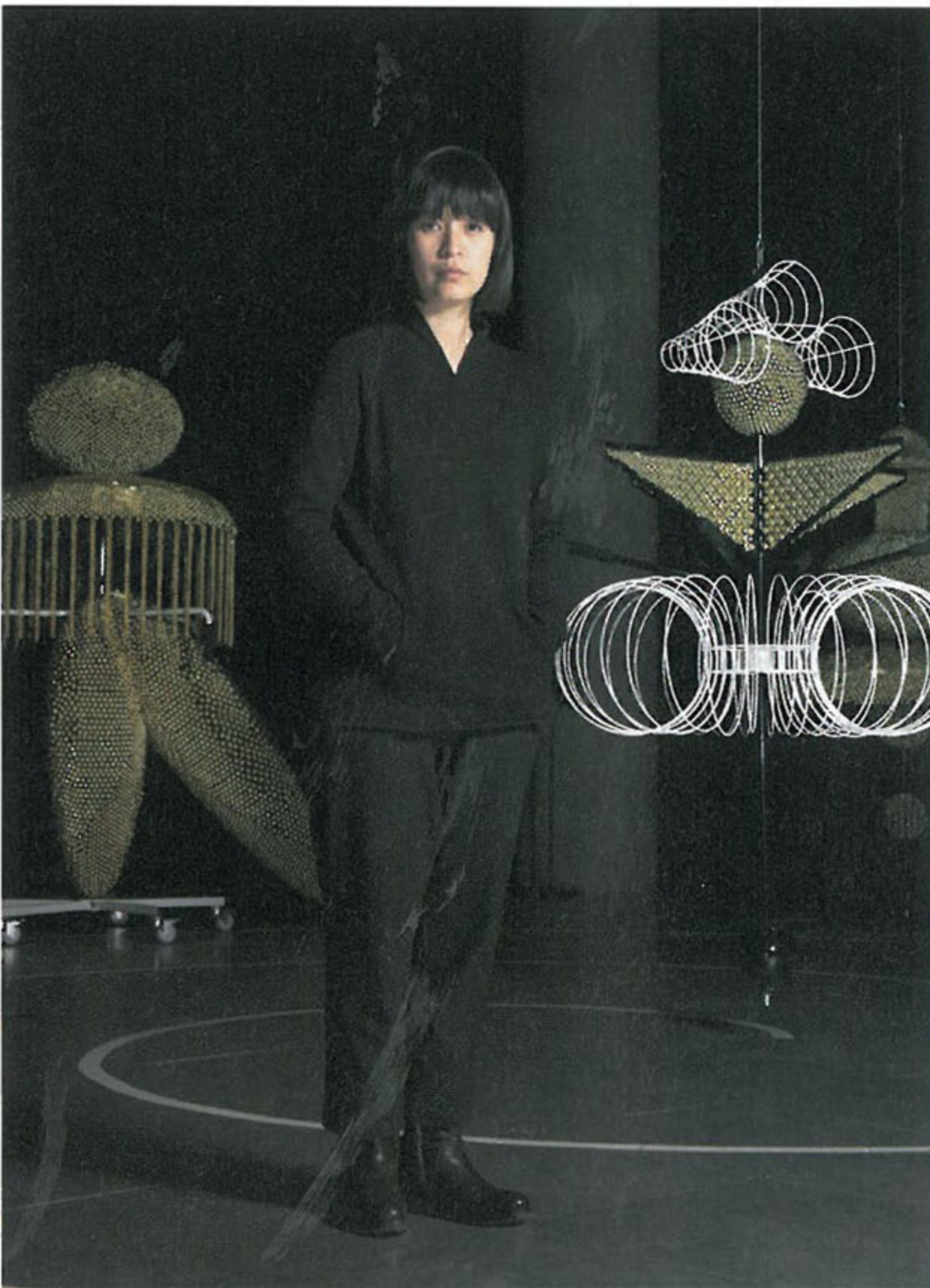
전시에 대한 소감은 없습니다. 일 년에 결혼을 스무 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혼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전에는 국적이 불분명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전통 소재인 짚으로 만든 신작을 선보이며 아시아적인 영역에 가까워진 듯하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제가 판 함정의 일부인데, 국내전이다 보니 우리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너무 보편적인 생각이예요. 짚풀 문화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모든 문명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국적인 건물과 형상들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연상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다른 무엇인가를 연상해 낼 거예요. 제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 미니멀리즘 조각가 솔 르윗 작품을 차용한 블라인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 두 개의 블라인드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성체'가 양혜규의 전형적인 블라인드 설치미술 작품이라면 '솔 르윗 뒤집기'는 새로운 챕터에 있는 작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작업에서 문학이나 철학 같은 분야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한 반면 미술사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작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의아해 할 작품이 바로 '솔 르윗 뒤집기'입니다. 차용한 것은 형태지만 그의 미술사적인 업적을 차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화적 감성은 교훈주의로 흐르기 마련인데, 미니멀리즘 조각 같은 예술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죠.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일종의 해방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태가 아닌 이 해방감을 빌려온 거죠. 그간 만들어온 제작업 방식을 스스로 버리는 해방을 꾀했다고 할까요.



#### 서울의 'VIP 학생회관' 같은 경우 다른 해외 도시의 전시 풍경보다 다소 삭막하게 느껴진다. 이유가 궁금하다.

VIP 학생회관에서는 제가 판을 짜는 사람이에요. 도박으로 비유하면 하우스 경영자인 셈이죠. 하우스 경영자에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거지 어떤 판이 벌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손이 많이 간 편이예요. 어찌 보면 이번 전시에서 가장 개념적인 작업이 '창고 피스'와 'VIP 학생회관'인데요. 작가가 하나하나 손대는 조각가적인 면모보다 사회적인 코멘테이터 같죠. 판을 짜 놓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재현하는 풍경 자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풍경이예요.

#### 일상 물건을 사용한 설치미술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원 조각이예요. 사실 소진됐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한 '바람에는 팔이 없다'는 작품도 '일상'이라고 불려졌던 것들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저는 '일상'이 아닌 '살림'으로 부르고 있지만요.

#### '일상'과 '살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날 '일상'이 너무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특히 문학이나 미술에서 '일상의 발견'이 자주 언급됐죠. 그래서 제 방식으로 말을 바꾼 것이 '살림'이예요. 여기엔 어떤 규율로부터 살아내고자 하는 존재론적인 의지나 우악스러움, 속세적인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앞서 말한 공예가 잃고 있는 힘이 살림에는 아직도 깃들어 있는 거죠. '바람에는 팔이 없다'는 작품을 야외 공간에 설치한 이유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에서 웅웅거리며 휘날리고, 마치 '살림'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예요. 내부 전시 작품을 다 보고 난 후에 이 작품을 봤을 때 그 여운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시와 관련된 숨은 팁을 알려준다면?

2층에 전시된 블라인드 설치미술 작품 '성체' 안에는 영상 작업이 배치돼 있어요. 이 영상 작업은 2009년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설치한 작품으로 보편성을 벗어난 공동체와 이웃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수기의 베니스에서 소속이 파악되지 않는 불량 청소년이나 불량자들의 모습을 찍었고, 재개발 때문에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는 아현동 모습을 촬영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이웃을 담았죠. 만나지 못한 이웃,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웃, 그렇지만 서로 같이 성장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이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와 관객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 위에 무빙 라이트와 소리, 영상이 중첩되고 엇갈리며 새로운 조합을 일으키는데 그 새로운 감각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 작품을 두고 어렵다고 말하는 관객도 있다.

그게 제 몫이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관계나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부모와의 관계가 쉬운가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쉽게 풀겠어요. 현대미술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 쉽게 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되는 일은 안 해도 돼요.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10월 말에 베이징 798 예술구 내 울렌스현대미술관(UCCA)에서 개인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첫 중국 전시여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시예요. 그동안 중국 전시도 한국 못지않게 잘하고 싶어서 웬만한 전시는 고사하며 몸을 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다만 '양혜규'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는 일들을 만들고 싶습니다.